◇기획특집…정상회담 길림돌로 작용한 '김주석 사망' 그후의 남북관계

과도적 혼란 우려 … "속단은 금물"

북한 김일성주석의 갑작스런 사망은 25일로 예정되었던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개최를 무산시켰음은 물론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정치안보 질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긴장과 대결양상이 국내외에 비상한 관심을 이끌어가던 중 대화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던 시도가 이루어지던 때에 북한 지도층 교체는 한반도에서의 통일과 관련하여 매우 심각하면서도 불투명한 시사를 주고 있다.

김일성의 사망으로 인하여 남북관계는 당분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현상유지의 소강상태가 계속될 것 같다.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은 북한 집권층내에서 권력승계를 강화하는데 치중할 것이다. 이는 북한의 대외정책이나 외교정책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현재로서 김일성의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病死로 알려져 있으나 남북정상회담과 제3차 북미고위급 회담 등 김일성의 새로운 정책의 전환의 조짐이 보였던 미묘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의 사망의 원인에 관하여 피살설, 독살설 등 이른바 권력음모설에 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김일성의 타살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미 북한내에서 권력승계와 체제유지를 위한 외교 협상정책에서 집권층내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타살이 아니라 하더라도 북한 집권층은 김일성 사후의 북한의 향방에 관하여 심한 갈등을 겪으리라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사실 그동안 북한 내부에서 소위 개방파와 수구파 혹은 온건파와 강경파간에 이념적 정책적 대립이 있어 왔으며 고위급 인사를 포함하여 조직적인 판세계 그룹의 활동이 은밀히 진행되어 왔다는 보도가 여러차례 있었다. 비록 공식적으로 김정일이 전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김일성이 없는 정치적 공백상태에서 북한 내부의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어 당분간 북한의 정국은 내부적으로 혼란을 겪을 것이다.

이러한 과도기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북한 내부에서 군부를 비롯한 강경파들이 김김이 강해지고 따라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동안 탈냉전시대에 있어서 북한 정권의 최상의 관심사는 소련 및 동구권의 붕괴와 사회주의 이념의 몰락이라는 국제질서의 대변혁 가운데서 어떻게 북한 체제를 유지하느냐에 있었던 것이 명백하다. 미국·일본과의 수교, 서방의 경제원조, 부분적 경제개방 시도등을 희망하고 특히 핵개발 추진등의 흥정으로 그동안 북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소위 일괄타결안을 끈질기게 주장해온 것은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다. 예정되었던 남북정상회담의 돌연한 성사도 이러한 북한 정권유지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즉 그것이 유엔제재를 모면하고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의 혜택을 위한 제스추어용이든 또는 남한과의 과계개선을 위한 진정한 정책태도 변화이든간에 그것은 체제 보호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해졌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물론 김일성의 사후에도 북한 체제의 유지는 타협할 만한 지도력과 합상력의 공백으로 인하여 NPT탈퇴 등 벼랑외교로 교묘하게 국익을 추구하던 북한외교는 당분간 그 효율성을 잃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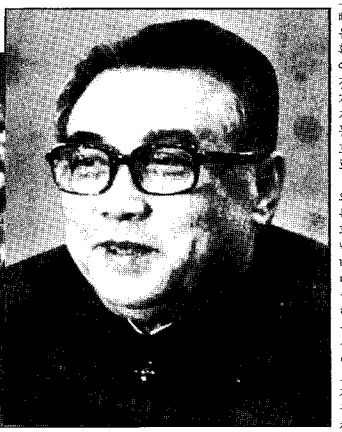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김일성의 사망이 남북관계의 개선은 물론 통일을 위한 호의적인 여건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궁핍한 경제상태, 혼란한 민심, 그리고 패쇄적이고 고립적인 북한사회를 개방하라는 국제적 압력으로 미루어 북한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치적 경제적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이다. 북한 집권층에 있어서 김일성 사망으로 인한 정권의 교체는 지난 50년 동안 철저하게 이끌어온 사회주의 체제의 방향을 수정하고 중국식의 개방체제를 채택할 수 있는 기회와 명분을 제공할 지도 모른다. 그것은 북한식 사회주의의 포기가 아니라 체제 유지를 위한 전략적 수정이라는 의미에서 북한집권층에게는 필요한 선택이 될 것이다.

문제는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위기에 처한 북한이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사망으로 야기된 이념적 정치적 위기에 봉착하여 그 체제를 유지하지 못하고 붕괴되는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북한체제의 장기적 생존 가능성에 관하여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동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누적된 체제붕괴의 여러 원인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므로 향후 북한집권층의 태도나 정책여하에 따라서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향후 남한의 대북정책 혹은 통일정책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물론 남한의 정책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회피하고 대화협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것으로 표방되어 왔다. 북한의 핵보유는 바로 이러한 평화적 통일을 원치 않는 것이 남한에서의 대체적인 국민적 합의이며 또한 현 김영삼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다.

둘째, 만약 남한의 통일정책이 점진적인 합의통일에 있다면 남한정부는 북한체제가 유지되면서 서서히 정치적 경제적 개방체제로 전환되도록 지원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정책하에서는 북미수교를 적극 지원하고 경제개발, 산업구조 개편 등 북한이 남한과 공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구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개방되고 보다 안정된 북한체제는 궁극적으로 통일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만들며 또한 전쟁이나 흡수통일에 의한 비용에 비해 장기적으로는 훨씬 저렴한 비용이기 때문이다. 김영삼정부가 주장하는 3단계 통일을 원칙 혹은 것이 남한에서의 대체적인 국민적 합의이며 또한 현 김영삼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다.

둘째, 만약 남한의 통일정책이 점진적인 합의통일에 있다면 남한정부는 북한체제가 유지되면서 서서히 정치적 경제적 개방체제로 전환되도록 지원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정책하에서는 북미수교를 적극 지원하고 경제개발, 산업구조 개편 등 북한이 남한과 공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구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개방되고 보다 안정된 북한체제는 궁극적으로 통일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만들며 또한 전쟁이나 흡수통일에 의한 비용에 비해 장기적으로는 훨씬 저렴한 비용이기 때문이다. 김영삼정부가 주장하는 3단계 통일



북—권력승계 따른 갈등예상, 정치 결속다질듯
남—북한 체제 보장하며 점진적 개방 유도해야

김춘근박사 인터뷰

"경희는 뼈와 살이 된 토양입니다"
사고방향을 국제무대 변화시켜야

가진 것이라고는 미화 2백달러와 그리고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정치를 배워보겠다는 일념만을 가지고 27살의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간 그 그가 지금은 미국 알라스카주의 경제정책을 움직이며 "경희인"의 명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김춘근박사. 64년 정외과 12회 졸업생이다. 김교수는 지난 6월 국제교류위원회의 초청으로 우리 대학에 방문 교수로 머무르고 있었다. 김교수는 현재 알라스카 주립대학의 교수이면서 알라스카 주립정부의 경제부문 고문이기도 하다. 그것을 인연으로 1990년 주립정부로부터 경제개발 최공헌자로 인정돼 주지사상을 받기도 했다. 주지사 해외순방때는 그와 함께 세계를 돌며 경희를 빛내고 있다고 한다. "경희는 나에게 뼈와 살이 되어준 토양과 같습니다.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사고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김교수의 이러한 애교심은 대인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자신이 경희출신이라는 것과 크리스챤이라는것. 이 두가지는 어느 사람을 만나건 잊지않고 말한다.

이렇듯 그의 영광의 뒤안길에는 각고의 노력과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도미한 이래 5년동안 평균 수면시간 3시간30분에서 4시간 안팎, 일주일에 최소 1천 5백 페이지에 달하는 논문을 읽어내려갔다. 그의 최장 불면의 시간은 72시간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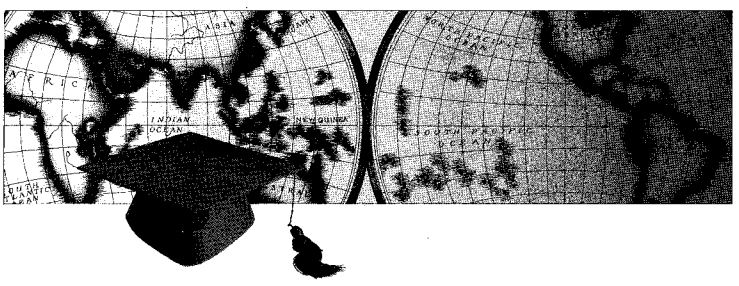
"당시 나는 최선을 다해 공부했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김교수의 일침은 편리한 것만을 선호하는 이 시대의 젊은이에게 좋은 귀감이 된다.

"한국에 건너와 보고 느낀점이라고 한다면 책임을 도외시한채 자신의 주장만을 너무 내세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주장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 합니다. 또한 사고의 방향을 국제무대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김교수는 지난 6일 자신의 나라가 되어버린 미국으로 떠났다. 자신의 아들을 경희에 남겨두고. 김교수의 아들은 현재 광릉의 평화복지대학원에서 한국인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있다. 〈석〉

남북정상회담 무산 … 국민 "아쉬움"

남북정상회담 무산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아쉬움과 유감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번 회담이 성사되어 남북간의 대화가 재개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김일성 사망 소식에 놀라움과 충격을 금치 못하였다. 김일성 사망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김일성 사망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이 걱정된다"고 말하였다. 또한 "김일성 사망이 남북관계 개선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김일성 사망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회담이 성사되어 남북간의 대화가 재개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김일성 사망 소식에 놀라움과 충격을 금치 못하였다. 김일성 사망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김일성 사망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이 걱정된다"고 말하였다. 또한 "김일성 사망이 남북관계 개선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김일성 사망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세계화의 주역은 대학입니다"

세계가 한 나라처럼 좁아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세계처럼 넓어지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세계인과 함께

21세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 학 주 보 사